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 (시편 141:1-10)

Praying to keep out of the evil trap (Psalm 141:1-10)

시편 135-150편, 즉 예배시를 연구하면서 예배 요소로 찬양, 기도, 죄의 고백, 성경봉독, 설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배시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사랑과 자비를 찬양할 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본 시는 특히 기도 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While studying Psalm 135-150, we find that these psalms have elements of worship including praise, prayer, confession of sin, reading the Bible, and preaching. However, there are many churches nowadays which do not conduct worship biblically. These psalms of worship not only display God's goodness, holiness, omniscience, and omnipresence, but also teach us how to praise the Lord and especially how to pray as well.

1. 기도에 관한 시

본 시에는 매 단어와 문장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저녁의 시, 또는 잠들기 전에 부른 시라고 합니다. 시편 141편은 전통적으로 저녁기도로 사용되었습니다.

1. A psalm about prayer

Psalm 141 has a prayer in every word and sentence; it is called an evening psalm or a psalm to read before going to bed. Therefore, Psalm 141 has traditionally been used as an evening prayer.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가시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확실치 않지 못하며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매일 망할 자리에 빠져있으므로 능력 있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In recent times,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Christians who have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ayer, thinking of it as something burdensome. First of all, because we do not know what God is thinking, we are not sure what we should pray. This is because we do not know the Bible, and do not really think that we need God's help. But David has shown us how we can practically pray every day, even when we are drawn into places where we know we will be ruined.

2. 기원

본 시의 처음 두 절은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들으소서' 라는 예배 시작시에 하는 기도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또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기원). 로빈 토레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왔다는 인식이 있 기까지 공적이든 사적이든 한 문장도 중얼거려서는 안 된다' 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기도가 되기를 다윗은 소망합니다.

2. The invocation

The first two sentences, "O Lord I call to you: come quickly to me. Hear my voice when I call to you," are meant as a prayer, at the very beginning of worship. Therefore, when people begin to worship or pray, it is very important above all else to entreat God's presence (entreaty). Reuben A. Torrey said, "Whether it is official or personal, we must not murmur even a sentence until we recognize God's presence before us." David puts his hope in the fact that our prayers can be offered to God, no matter what our prayers look like.

3. 순결을 위한 기도

다윗은 자기 입에 그리고 마음과 행동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지켜달라는 것과 말과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고 바르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3. A prayer for purity

David entreats God to set a guard over his mouth, heart, and conduct. This means that he is entreating God to keep him from sin and to make his word, mind, and conduct clean and upright. Just as the Lord's house is safe when the Lord is guarding it, our complete person is preserved when He keeps watch over our mouth. Just as an evil word originates from our heart, that word will be pure if our heart is first cleansed. However, God is the only one who is able to raise up a pure mind. David entreats God to keep guard over his word, heart, and deed, because he knows it is the only way.

4. 믿음으로

예배가 끝나고 축도를 받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세상에는 위험이 있고, 악한 자의 율가미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께 고정되어 있는 한 위험과 시험의 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4. With faith

At the end of a worship service, we are given a benediction to return to the world. We who have prayed to God must fix our eyes on God. In the world, there are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Therefore, we are only able to walk on the path of danger and trial, as long as we fix our eyes on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온전히 찬양하므로 참여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By praying to God uprightly and praising Him completely, I earnest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 true worshiper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제8회 교구 찬양대회

5월14일(금) 오후7시 - 본당

우리교회 16개 교구 가족들과 예배다부원들이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 드리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2010년 교구찬양대회가 5월14일(금) 오후7시 본당에서 열린다.

교구찬양대회에 참가하는 교구 및 부서에서는 자유곡 1곡을 선정하여 연습하고 찬양대회 당일 연습한 곡만 찬양하면 되며 심사기준은 참여도 50점, 음악성 20점, 준비성 20점, 관중호응도 10점으로 하며



박도철 목사, 장석남 목사, 박정선 장로, 김영준 장로, 고성진 집사, 류충기 집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수고하게 된다. 최고 득점한 교구는 사랑상을, 2위 2개 교구는 믿음상·소망상의 순서로 결정할 예정이다. 사랑상을 수상한 교구는 5월16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특송을 담당하게 된다. 모든 교구와 부서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이종운 목사 귀국

지난 3월 15일(월) 출국하여 미국(애틀랜타, 워싱턴DC 등지)에서 연합집회 인도, 강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특히 영광스러운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학교의 명예를 크게 높이고, 국내외적으로 복음을 위한 큰 족적남긴 이종운 목사의 그간 업적을 인정하여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를 교수회와 이사회가 결정하였다. 명예신학박사 학위수여식은 5월 27일에 있을 예정이다.

미국 일정 후 영국(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세계 개혁주의협의회(WRF)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인사의 말씀과 보고를 한 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4월 23일(금)에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종운 목사의 건강과 영력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민에게 전도 - 말라위 단기선교

말라위를 품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김용진 목사(말라위 선교사)

사랑의 기도와 귀한 물질로 섬겨 주심에 이곳 말라위의 각종 사역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전합니다.

이제 말라위 사역의 전반적인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 선교사역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매일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치는 새벽제단을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재소자 자체적으로 드리는 주일 저녁예배와 수요저녁 예배도 계속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간 모은 기금으로 약 60만평 가량되는 마캉가 농장교도소의 일차 관계 예정지에 대규모의 관개시설을 갖추어 많은 양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준비만 하고 있었던 양계사업이 금년도 중반이나 후반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윤상 기념진료소도 연일 많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어김 없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와서 길게 줄을 지어 앉아 8시에 문을 열기만을 기다립니



다. 마칸디에는 저희 진료소를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메터에는 이러한 사설 진료소마저 없는 실정이라 저희 진료소에 늘 사람이 북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8월에 서울교회 단기선교팀에 기대가 큼니다. 단기선교팀이 오는 시기에 맞춰 초등학교를 개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방치된 건물의 구석 구석에 사오십 명씩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었던 마칸디 초등학교가 교도소가 들어서면서 폐쇄되고 어린이들이 인근의 초등학교로 분산 배치될 지경이었습니다.

교도소 선교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누닷없이 먼 곳에 있는 학교로 맨발로 등, 하교하여야 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학교 측과 마을 추장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 건립할 것을 약속하고 임시로 농기계정비소와 주차장으로 쓰이던 지붕만 있고 벽은 없는 공간에서 수업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그간 3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두 가정이 말라위의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헌금을 기탁하여 바야흐로 초등학교 건물



이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개척된 말라위 서울교회

는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지역사회 선교와 섬김의 중심이 될 곳이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상기한 모든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능력에 굳게 선 성도들이 진료소, 사료공장, 어린이 영양식 제조공장, 양계장, 학교 시설관리, 등의 일련의 사역에 종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요청됩니다.



민민에게 전도 - 말라위 단기선교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강인 집사(11교구, 단기선교팀장)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 10기 단기선교팀이 황광 목사님의 지도 아래 8월 3일부터 12일까지 말라위로 떠나게 됩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그 중 남동부에 위치한 말라

위에는 이미 서울교회에서 파송한 김용진 선교사님께서 마칸디 교도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역을 하시며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1850년경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처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린 이후,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토착민들의 대항과 맹수와 열병과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위를 비롯한 아프리카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했고, 가난과 무지와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흘간의 짧은 일정으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5월부터 말라위 단기 선교를 위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뜻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입지조건 특호의 1교구



강승용 집사
(1교구 간사)

하나님이 세워주신 서울교회 자체만으로도 자랑이고 특권이지만 그 교회의 교인으로 섬기는 1교구의 성도들은 더욱 긍지와 자랑입니다. 한티공원의 사계절을 맛보며 교회 제일 가까이에서 살고있는 우리들보다 행복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더 먼 거리로 이사 갈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가까이 있을 동안에 더 겸손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너무나 큰 교구이어서 다락방이 40개나 되는 축복을 받고 있으며 모든 다락방마다 성도의 교제와 헌신이 뛰어날 만큼 대단합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마다 1교구일꾼들이 앞장서 있음에 감사할 뿐이고 참여도에 있어서도 으뜸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교회 가까이에 있기에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행사에 적

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는 유익은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좋은 축복을 가진 교구이기에도 더욱 교회가 요구하는 일들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여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1교구로 오십시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최인권사
(2교구)

2교구는 교회에서 알맞은 거리에 위치한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집과 교회가 가까울수록 좋은 점이 많지만, 이 넓은 서울에서 이정도 먼 족합니까? 그러니 알맞다는건 순전히 주관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거리뿐만이 아니라 교구식구들의 구성도 알맞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부터 새식구까지 연배의 배합이 조화를 이루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다'는 옛말이 실험으로 증명되는 걸 보니, 비교적 고령인 2교구의 슬기로운

은 날로 더할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교회도 예외가 없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2교구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열정이나 왕성함보다 우리가 도시화의 과정에서 잃었던 온기와 배려의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느낄때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촘스럽기도한 느낌의 미학이 평안을 느끼게 하는데, 그 평안이 수줍은 미소속에 강함을 감추신 한상은 목사님과 닿아있습니다. "아니오"를 하지않고도 반드시 당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외유내강이여!

남남이 모여서 마음을 열고 나누기까지 필요했던 끝없는 헌신을 실천하시느라 오늘도 바쁘신 이복규 장로님 내외분. 순전함이 무엇인지, 신앙의 선

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분이되십니다.

이제 5월 14일의 찬양대회를 앞두고 두분 간사님들이 바빠지겠지요. 벌써 문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결집을 통해서 깨닫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라지만, 찬양이야말로 소리내기 힘든 나이에 이르러야 절실히 느껴지는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젊고 윤기있는 목소리를 주시고 '주 너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건만, 무엇이 그리 바빠던지 육신이 쇠한 후에야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음이여... 그래도 '호흡이 있는 자는 찬송하라' 하셨으니 부족한 육신의 소리에 영의 기도가 더해져 부르느니나 듣느니 모두의 마음에 파스한 봄비로 내릴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2교구



주님의 기쁨 3교구



김수원 집사
(3교구 간사)

분주하고 바쁘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그 동네에는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서로를 <~충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쁨충만> <미소충만> <지혜충만> <단합충만> <순종충만> <희망충만> ...

그 동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병환에게실 때, 자녀들의 결혼과 바라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그럴 때마다 온 동네가 찬양으로 아뢰고 기도도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셨고 계속하여 화답하실 것입니다.

요즘 <기쁨>동네에 <~충만>분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하는 모습이 눈에 띄입니다. 5월에 있을 [찬양제]를 준비하느라 싱글벙글입니다. 잔치를 아름답게 즐겁게 기쁘게 섬기고자하는 마음같습니다.

지휘자님의 귀여운 카리스마에 권사님들 모두 소녀적 동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야! 기쁨의 외침, 야! 기쁨의 외침, 야! 기쁨의 외침 할렐루야!

순놀림으로 발굴림으로 권사님 집사님들은 신이 나고 반주자님의 힘찬 반주에 동네가 들쭉입니다. 주님께서 <기쁨>동네에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쁨>동네에 사시는 분

들은 [찬양제]준비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길 원했는데 주님께서서는 되려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기쁨>동네분들은 [찬양제]를 기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쁨>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마음 한가운데에 기쁨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5월 14일에는 주님과 또한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순종과 섬김의 땀방울이 모여져

이영주 권사 (5교구)



겨우내 움추렸던 나무들이 물이 오르고 따스한 봄볕에 하얀 목련이 꽃잎을 여는 소리를 들읍시다. 우리 만나홀에서도 달그락 달그락, 짹 짹, 짹아짹아, 덜컹덜컹, 딱딱, 이 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점심준비로 천국 백성들이 저마다 악기를 연주하듯, 봉사하는 아름다운 하모니 소리입니다. 멀리서 가까이에서 열 일 제치고 달려온 이들의 손놀림이 오늘도 쌀을 씻고, 밥을 앉

히고, 그릇을 챙겨서 제자리에 놓아주시고, 식탁을 닦고, 바닥을 청소하고, 국을 날라주시고, 밥과 김치를 담아주시며 주일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설 새 없이 준비하는 만나홀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막 피어나는 새 순채럼 살며시 섬겨주시는 도르가, 꽃봉우리처럼 힘을 모아 섬기시는 루디아, 피어나는 꽃잎이 되어 서로서로 섬겨주시는 비비, 활짝 핀 꽃처럼 섬기시는 마리아, 꽃 피우느라 애쓴다고 즐기 되어 섬겨주시는 에스터,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시는 리브가와 하나. 기도의 밑거름 되어주신 샬롬 권사회,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주일 2부예배를 담당하며 언제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부장:김영준장로)의 찬양으로 드린다.

고성진 집사(한서대교수)의 지휘와 김현정성도의 오르간, 김양언성도의 피아노, 박광서집사(한예종교수)의 팀파니연주로 "하늘 영광 밝은 길이(윤광남편곡)"의 2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려고 힘든 일 마다 앓고 애쓰시는 남선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그 사랑과 섬김을 몸소 닦아가려고 애쓰시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모습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만나홀을 위해 늘 협력 하시며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순종과 섬김의 땀방울이 모여져 한 송이 만나 꽃을 피어 올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박광일 전도사 (디아스포라부 지도교역자)

어느덧 계절의 흐름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늘 봄의 계절과 함께 생명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감탄과 함께 감격이 북받침을 느끼게 됩니다. 늘 봄의 계절이 되면 느끼듯이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에 북한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원종장인 '디아스포라' 부가 세워진지도 어느덧 칠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서울교회 '디아스포라' 부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이르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올 해도 저희 '디아스포라' 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영적인 슬로건을 제시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저희 '디아스포라'

부'는 화창한 봄의 계절을 맞으며 전도행사를 4월 30일(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전도행사는 '디아스포라' 부와 'Rainbow English Academy for Diaspora Leaders'가 함께 국내 거주 탈북청년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서울교회를 알리는 전도행사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디아스포라' 부 전도행사를 통해 많은 국내 거주 탈북청년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8년 가을전도행사

찬양대원 세미나

찬양대원 세미나가 4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강사로는 이상길 집사로 현재 지구촌교회 지휘자, 한국 합창 총연합회 회장, 인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중앙대학교 합창 지휘 겸임교수이다. 모든 찬양대원은 반드시 참석하여 찬양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명과 자질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6일(월) 한장총 임원회, 27일(화) 에든버러 100주년 준비위원회, 29일(목) 장로교신학회, 한장총소속 교단 총무단 초청, 한장총 발전 세미나, 30일(금) 북한구원 운동 공동회장단 모임을 각각 소집한다.
- 주간식당 봉사: 제2스데반회(4.25) 제1권사회(5월 2일)
- 금주의 식사: 이경선 집사 가정 (정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화요정오음악회 4월 27일(화) 정오- 한수경 오르간 연주회



한수경 / 오르간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원 졸업
- 한세대학교 대학원 오르간전공 졸업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국립음대 (Conservatoire National de Region de

Strasbourg)

- 최고 연주자 과정 (le Diplome de specialisation) 졸업
- 기독교 음악대학 오르간과 강사 역임- 현재, 승동교회 오르가니스트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8시 30분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37학기 목회자 세미나, 27학기 서울 성경대학 위하여
3.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